

碩 士 學 位 論 文

# 安部公房의 「疎外」

- 『타인의 얼굴(他人의顔)』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洪 性 範

2002年 8月


# 安部公房의 「疎外」

- 『타인의 얼굴(他人の顔)』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2年 5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洪 性 範

2002年 7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安部公房의 「疎外」  
-「타인의 얼굴(他人の顔)」을 중심으로-

洪 性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鸞 姬

1964년 1월에 『群像』에 발표된 『타인의 얼굴(他人の顔)』은 같은 해, 9월에 改稿増補되어 단행본으로 講談社에서 발행된 장편소설이다. 또, 작가 자신에 의해 脚色되어 영화화되었고, 20여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타인의 얼굴』은 第7回 野間文芸翻譯賞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타인의 얼굴』은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세계 문학 속에 한 작품으로 자리 매김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4월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安部公房國際심포지움」에서도 『타인의 얼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세계 문학 속에서의 아베문학의 위상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아베의 문학 가운데 『타인의 얼굴』은 현대인의 「소외」를 주제로 다룬 계열의 『모래의 여인(砂の女)』(1962) 이후의 두 번째 작품으로써, 『모래의 여인』보다 그 주제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패전이후의 일본의 현실을 형상화한 본격적인 현대문학의 한 작품으로 사료된다.

아베의 本籍은 北海道이지만 東京에서 태어나 성장기의 대부분은 滿洲에서 생활하고 대학은 東京에서 보내게 되는 이력 때문에 「故郷喪失者」라는 작가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그는 고향에 대한 일반적인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특이함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얼굴』이 발표된 당시의 일본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급속화된 주거환경과 대량소비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며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도시생활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종전의 人情社会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끈끈한 인간관계는

---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해체되기 시작했다. 또, 근대화·도시화는 편리와 신속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가치관을 변모시켰으며 실존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아베는 작가생활을 했던 1960년대의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당시, 기존의 모든 가치 체계가 붕괴한 혼란기에 있어서의 일본과 그의 내면에 고립감을 소외의식으로써 그의 작품에 투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도시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문제를 아베의 「소외」의식과 결부하여 작가의 문학 및 철학에 대한 이해를 始點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소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작가가 『타인의 얼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남달랐던 유년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의 「소외감」과 작가생활을 하던 당시의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혼란했던 일본의 당시 상황을 그의 생애체험을 통해 알아 보았다.

「추기(追記)」·「추기의 추기(追記の追記)」·「란외주(欄外註)」·「아내의 편지(妻の手紙)」가 덧붙여져 복잡하게 얽힌 작품의 구성은 그가 피력하고자 했던 현대의 불합리 및 부조리라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삭막하고 황량한 일대에서 「얼굴」을 상실한 주인공이 인간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복면의 얼굴」과 「가면의 얼굴」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며, 어떤 얼굴이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타인의 얼굴』은 정상적인 「얼굴」을 상실한 주인공을 등장시켜 산업화되어 급변하는 당시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기 시작한 「소외」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소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며, 「소외」를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얼굴』과 더불어 연구 검토되어야 할 『상자 남자(箱男)』(1964)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아베의 生涯	6
III. 『타인의 얼굴』의 構成	11
IV. 『타인의 얼굴』에서의 「疎外」의 의미	15
1. 얼굴 상실로서의 「소외」	20
2. 복면의 얼굴로서의 「소외」	30
3. 가면의 얼굴로서의 「소외」	35
V. 결 론	49
참고문헌	52
Abstrac	59

# I. 서 론

아베코보(安部公房 : 1925~1993, 以下아베라고 칭함)<sup>1)</sup>는 일본 戰後文學史에서 독특한 문학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 가운데 하나이다.

1964년 1월에 『群像』에 발표되었던 『타인의 얼굴(他人の顔)』은 같은 해인 9월에 改稿増補되어 단행본으로써 講談社에서 발행된 장편소설이다. 그리고 곧 바로 1966년 7월에 아베에 의해 脚色되어 영화화되었고, 미국과 덴마크를 포함하여 20여 개의 나라에 소개되어 그 해 10월에는 『群像』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된 『타인의 얼굴』이 第7回 野間文芸翻譯賞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타인의 얼굴』은 그의 대표작인 『모래 여인(砂の女)』(1962)과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어, 세계문학 작품의 하나로써 자리 매김하는데 성공하였다.<sup>2)</sup>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1996년 4월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열린 「安部公房國際심포지움」에서도 『타인의 얼굴』이 비중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세계 문학 속에서의 아베문학의 위상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문학의 특징으로는 작품에서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주로 他人이 만든 세계, 즉 共同體에 대치하고 있다. 그들은 악의 있는 他人에 대항하며 그 박해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어떤 때는 가면이나 다른 생물 또는 무

---

1) 東京대학 의학부졸업반이던 1948년에 『끝난 길의 이정표에』로 문단에 데뷔, 『빨간 누에고치』(1951)로 제2회 戰後文學賞을 수상하였고, 『벽, - S카르마씨의 범죄』(1951)로 제25회 芥川賞도 수상하여왔다. 또, 1962년에는 장편소설 『모래의 여인』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일본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 한편, 기록문학과 정치에 대한 참여도 활발히 전개하는 동시에 시나리오·드라마 등의 시청각·조형예술에도 주목할 만한 활동을 보였다.

2) 호쇼마사오 - 外, (고재석번역) (1988), 『日本現代文學史』, 문학과 지성사

생물들을 매개로 하여 變身<sup>3)</sup>하고 또 어떤 때는 失蹤<sup>4)</sup>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공들은 주로 자유에 대한 강렬한 욕구로 가득 차 있으며 언제나 고독한 자유의 세계를 꿈꾸며 자기존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타인의 얼굴』역시 여러 가지 은유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의 본질을 그려내려고 하였고 주인공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려는 의도가 보이는 작품이다.

또, 상황의 변화라든지 모래에서 물을 발견한다는 것 또는 도시의 미로에서 없어져 버리는 이야기<sup>5)</sup>들은 작가의 의식상의 변화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모든 작품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작품도 1960년대 당시의 사회 상황<sup>6)</sup>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며 당시, 모든 戰後의 기성 가치 체계가 붕괴한 혼란기에 있어서의 작가의 문제의식이 작품에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타인의 얼굴』에 대한 연구는 그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패전이후의 일본의 현대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작품으로 사료된다.

이 작품에 관한 논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에서의 『타인의 얼굴』에 대한 연구로는 프랑스의 아베문학의

---

3) 『デンドロカリア』(1949) : 주인공이 식물원 관리인에게 붙들려 식물이 되어 식물원에 전시된다는 이야기

『壁 - カルマ氏の犯罪』(1951) : 자기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는 주변의 것들이 사라지면서 벽이 된다는 이야기

4) 『砂の女』(1962) : 곤충채집을 위해 나선 평범한 교사가 모래구렁이에 감금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5) 『燃えつきた地図』(1967) : 도시에서 증발한 남자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탐정인 자신도 증발해 버린다는 이야기

6) 高野斗志美(1979), 『國文學解釋と鑑賞』, 「小説における安部公房-1960年」, 至文堂

연구자로 알려진 유리 블럭氏의 「安部公房·가면의 창시자 - 소설과 영화로서의 『타인의 얼굴』과 피츠버그대학의 맥도널드·케이코氏의 「安部公房의 『타인의 얼굴』에 있어서의 變容」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작가자신의 의도한 소설에서의 언어와 영상에 있어서의 언어에 관한 연구들이었다.<sup>7)</sup>

그밖에 연구로는 渡辺広士를 들 수 있다. 그는 아베의 작품세계를 『모래의 여인』을 경계로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그 전까지는 허무의식과 공동체를 다룬 작품이 主를 이루었으나 『모래의 여인』이후부터, 『타인의 얼굴』, 『타버린 지도(燃えつきた地図)』(1967)에서는 현대의 일본이 처해있는 도시문제나 소외문제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 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해체되며 개체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目睹한 작가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써 이러한 작품들로 하여금 그러한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주제의식이 엿보인다고 하였다.<sup>8)</sup>



波瀾剛氏의 「安部公房의 『他人의 顔』論 - 文章構成의 形態とテーマをめぐって」라고 하는 論考의 「三部作における 『他人의 顔』의 特質とこれまでの 評価」에서는 앞서서의 세 번째 견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장구성 및 비소설적인 언어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失踪」이라는 테마에 포커스를 맞추었다.<sup>9)</sup>

일반적으로 『타인의 얼굴』에 대한 說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는 小松左京와 윌리엄 켈리씨의 공통된 견해로 주인공의 「얼굴」의 상실에 의한 남자의 행동을 도시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문제로 다룬 것이다. 두 번째는 岡庭昇의 견해로 작품의 후반에 등장하는 아내의 편지의 역할에 주목한 견해이다. 해석의 시각은 좀 다르지만 이것들은 모두

7) 李貞熙 (1997), 「潛在的癡漢と假面時代」, 筑波大學

8) 渡辺広士 (1976), 『安部公房』, 審美社

9) 川島秀一 (1996),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他人의 顔變-貌하는 世界」, 學燈社



「가면」의 모티브의 초점을 맞추어 개성상실에 의한 인간존재의 소외를 다루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세 번째 견해로는 武石保子氏와 같이 작품에서의 두 사람, 즉 「나」와 「아내」가 주고받은 편지에 있어서의 「쓰고」 또는 「읽는」행위에 초점을 맞춘 견해이다.<sup>10)</sup>

이것들은 「가면」과 「원래의 얼굴」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점은 약간씩 다르지만 모두가 「가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인공의 「얼굴」상실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도시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sup>11)</sup>하며 고찰하려 한다. 격동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관계가 해체되며 個體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경험을 통해 그 당시의 일본의 도시문제 및 소외문제에 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이 『타인의 얼굴』에 많이 투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작가에게 내재되어 있는 「소외」의 의미와 작가의 문학·철학에 대한 이해를 始発点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소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작가가 『타인의 얼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아베문학의 성격형성 요인이 되었던 그의 남다른 유년체험과 사회적 분위기가 작품형성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장에서는 「소외」라는 문제가 작품의 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표출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4장에서는 「소외」의 의미와 『타인의 얼굴』에서의 의사소통의 한계로 보여진 얼굴상실에 따른 「얼굴상실로서의 소외」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복면을 쓴 「복면의 얼굴과 소외」 그리고 가면을 쓴 「가면의 얼굴과 소외」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대사회의 「소외」와 아베문학에서의 「소외」의

---

10) 渡邊俊 (1979), 『國文學解釋と鑑賞』, 「安部公房の現在」, 至文堂

11) 安西徹雄譯 (1975), 『疎外の構図』, 新潮社

의미를 규명해 보기로 한다.

텍스트는 集英社の 『安部公房集』<sup>12)</sup>을 사용, 본문 인용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

12) 安部公房 (1968), 『日本文学全集』, 「他人の顔」, 集英社

## II. 아베의 生涯

일반적으로 감수성이 생기기 시작하여 완성되는 것은 유년기 시절부터 청년기 때까지이며, 그 때까지의 경험했던 자연과의 교류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한 전통적 풍습의 습득과 사회적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sup>13)</sup>

아베의 幼年期는 조금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그가 경험했던 滿洲에서의 체험과 敗戰체험을 가르키는데 이러한 그의 경험들은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그의 작품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章에서는 아베문학의 성격형성 요인이 되었던 그의 남다른 유년체험과 사회적 분위기가 작품형성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大正 13년(1924) 3월7일 본명이 公房(きみふさ)인 아베는 동경의 滝野川(たきのがわ)에서 아버지인 淺吉(あさきち)과 어머니인 요리미(ヨリミ)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당시 아버지는 만주의대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가 국립연구소에 파견되어 동경에 있었다.

그 때, 같은 旭川(あさひがわ)출신이며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의 국문학을 전공한 요리미와 결혼하여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의 조부모님은 四国에서 나와 北海道의 旭川の 교외로 이주한 開拓民이었으며 그의 아버지인 淺吉(あさきち)는 初代村長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그의 出生地(東京)

---

13)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능동적인 생물 유기체인 사람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수성은 유년기에 생기기 시작하여 청년기의 초기에 완성된다고 하였고, 또 그것은 자기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던 자연과의 교류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한 전통적 풍습의 습득과 사회적 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도 하였다.

정원식 (1989), 現代教育心理学, 教育出版社

와 出身地(滿洲)그리고 本籍(北海道)은 각기 다르게 되었고 그것은 그가 고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그가 한 살 되던 해(1925), 가족들과 滿洲의 奉川市로 이사를 하여 그가 16세까지 그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의 고향이 奉川이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또, 奉川은 거칠고 메마른 사막의 風土였는데 이렇게 故郷意識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만주의 거친 고장에서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그 곳을 연상케하는 모래가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연유인 것 같다.

이렇듯 奉川은 아베의 실질적인 마음의 고향이었지만 敗戰後 중국영토가 되어 버리자 故郷喪失의 의식을 갖게 된다.

6세 되던 해, 奉川의 千代田小学教를 거쳐 奉天第二中學校에 입학하였는데 중학생시절, 에드가 알렌포우의 작품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어학은 싫어했지만 凶案을 그리거나 곤충채집을 좋아하여 매일같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또, 그는 검도와 장거리선수를 했으며 幾何學을 좋아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嗜好역시 그의 작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滿洲로부터 상경하여 成城高校에 입학하였으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책만 읽으며 지냈다. 이미 서구화된 東京이라는 大都市에서 그것도 학교의 기숙사생활은 일본적 풍토와 絶緣한 추상적 공간으로서의 생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비 속에서의 軍事教練으로 肺浸潤에 걸려 휴학하여 奉川으로 돌아가 일년간 兩親의 곁에서 요양을 하면서 토스토에프스키에 심취하였다.

그 이듬해, 병세가 회복되어 4월에 復學하지만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지는 軍國化에 반감을 갖게되며 교사로부터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라는 권유를 받을 정도로 수학에는 뛰어 나지만 그 외의 학교생활에는 소홀하게

된다. 이 시기에 니이체나 하이데거, 야스퍼스 등에 심취하게 되었다.

成城高校를 졸업하고 그 해 10월에 東京帝国大学の 医学部に 진학하였으나 전쟁이 계속 되면서 그의 精神狀態가 안 좋아지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는 등 빈둥거리며 하루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 가운데 한 명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그 친구의 癡狂으로 아베는 모든 것에 관심을 잃고는 릴케의 「形象詩集」을 탐독하게 된다.

20세가 되던 해, 10월에 敗戰된다는 소문을 듣고 肺結核으로 휴학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서를 위조하여 헌병의 눈을 피해 만주로 건너가게 된다. 그 때, 북한을 경유하여 만주로 건너가면서 갖게 된 북한의 대한 그의 인상이 나중에 戯曲 「制服」에 나타난다.

일본과는 달리 의외로 평온한 만주에서, 아베는 開業医였던 아버지를 도와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장티프스를 진료하던 아버지가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奉川이 소련군에게 점령되어 있는 가운데 시내를 전전하며 사이다를 만들어 팔고 살았으며 셀루로이즈를 당분으로 분해하는 연구에 열중하였다. 이러한 그의 경험들로 아베의 문학을 논하는데 있어서 故郷喪失感과 더불어 敗戰體驗을 빼 놓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당시의 체험을

瀋陽에서 일년정도 있었다네. 사회의 기준이 철저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 不變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어. (중략) 꽤 오래 동안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였는데, 그것은 정부도 경찰도 없는 곳이었다네. 그렇게되면 친구, 世界觀이라는 것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되지. 게다가 그 때에 나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것은 마치 정글에 내 팽겨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 어쨌든 나는 即物的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네.

瀋陽に一年半ばかりいた。社会の基準が徹底的に壊れるところを目撃したわけだ。恒常的なものに対する信頼を完全に失った。(中略) かなり長い期間完全な

無警察状態で暮らしたんだ。政府がないし警察がないんだ。そしたら、君、ちょっと世界観が変わるぜ。おまけにそのころの俺には社会科学的知識がゼロときている。ジャングルにほうり出された子供だよ。とにかく俺は即物的な見方を身につけた。14)

라고 술회했다

아베는 여기서 전쟁을 겪으며 얻게 된 実存主義가 敗戦体験으로 인해 붕괴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가나 日常性에서 벗어난 실제의 実存을 발견했었던 것 같다. 또, 이러한 경험들이 문학의 출발의 큰 디딤돌이 된 것은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占領軍으로부터 집을 빼앗겨 이 곳 저 곳을 전전하며 다니던 중 해가 끝나 갈 무렵 겨우 引揚船을 얻어 타게 되었으나 그 배안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입항한 채로 10일 정도를 있어야 했다. 이 때의 경험들이 나중에 「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1945년(소화20년) 8월, 무조건 항복에 의해 태평양 전쟁<sup>15)</sup>을 종결한 일본은 포츠담선언<sup>16)</sup>의 규정에 따라 연합군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다.

구제국 군대의 해산, 죄인의 고발, 시민적 자유의 확립, 노동조합의 보호육성, 농지의 해방, 재벌해체 등 일련의 조치가 연합군의 지령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수행된다. 또, 패전 전에는 비합법화 되고 있던 공산당이 공

14) 『研究資料現代日本文学』(1980), 「小説・戯曲Ⅱ」, 明治書院

15) 아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1937년7월7일에 시작된 중일전쟁(당시는 선전포고 없이 지나 사변이라고 했음)으로부터, 1941년12월8일의 말레이반도 코타바루 상륙과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시작한 태평양전쟁으로 발전했다.

本多秋五(1966), 『物語 戦後文學史』, 新潮社

16) 연합군(미국, 영국, 소련)의 공세로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동맹중에서 일본만 남자, 일본은 연합군의 목표가 된다. 독일패배후인 7월에 미국(루스벨트의 사망에 의해 트루먼이 참석), 영국(처칠, 도중에 애틀리로 교체), 소련(스탈린)의 수뇌가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회합하고, 7월26일에 미국,영국,중국 3국명의로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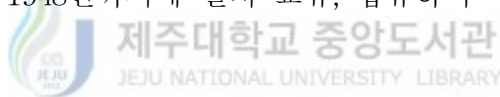
本多秋五(1966), 『物語 戦後文學史』, 新潮社

공연하게 활동을 개시한 것도 이 때이다.

전쟁포기를 주창한 新憲法의 발표는 이와 같은 민주적 혁명을 방향 짓게 되었고, 전쟁중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목 말라했던 작가들의 활동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戰後文學」의 성립이다.

「전후문학」에 「戰後派 文學」기점이 된 것은 1946년, 1월에 창간된 『近代文學』과 7명의 동인들<sup>17)</sup>이다. 이들은 昭和期 초반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좌절을 체험하였고 昭和10년대(1935~1944)의 전쟁을 경험하고 戰後를 문학의 청춘기로 맞이한 30대의 문학자들로서 세대적 사상의 기반을 공유하며 공통적인 문학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 외에도 여러 조류가 1947년부터 1948년까지에 걸쳐 교류, 합류하며 「전후파」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적 특징으로는 서구문학의 이해와 교양이 배경이 되어 현실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문제삼으려 했으며, 실존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作風은 관념적 또는 심리주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체는 논리적·사색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전후파」에 속하는 아베는 이러한 경험들이 문학생활의 디딤돌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타인의 얼굴』은 故郷喪失感과 敗戰體驗 그리고 일본의 고도성장기의 사회상을 토대로 당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던 「소외」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7) 本多秋五, 山室静, 平野謙, 埴谷雄高, 荒正人, 小田切秀雄, 佐々木 基一 : 이들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개인적인 주체성을 중시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守隨憲治 · 真下三郎 (1998), 『新編日本文学史』, 教育図書出版 一学習社

### Ⅲ. 『타인의 얼굴』의 구성

이 장에서는 작품의 구성과 「소외」의 문제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인공이 화학실험을 하던 어느 날 液体窒素의 폭발로 인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얼굴 표면이 켈로이드가 되어 정상적인 얼굴의 외모를 잃게 된다. 여기서 주인공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얼굴을 되찾기 위해 그리하여 원래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피부와 갖고 있는 타인의 「얼굴」을 만들게 된다. 집에 있을 때는 붕대로 얼굴을 감고 있으며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출장을 이유로 거처를 옮겨 다른 곳에서 지내며 다른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즐긴다. 그리고는 사고를 계기로 소원해진 아내를 그 완성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며 유혹하게 되고 그 아내는 그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털어놓기 위해 그 과정들을 공책 세 권에 기록해 놓고 자기가 숨어 지내며 가면을 만들었던 집에 남겨 놓는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 곳으로 오라는 연락을 남기고 주인공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연락을 받은 아내의 태도를 주시한다. 그러나 아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편지를 남기는 자취를 감춘다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주인공이 아내가 읽는 것을 전제로 기록한 글들이다. 일기의 형식을 취한 만큼 시간의 순서로, 남편의 독백에 의해 전개되며 전개상황에 따라 다른 색의 노트로 구분되어 있다.

이 세 권의 노트 주인공에 관한 약 일년동안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제1권에는 검정색 노트로 주인공이 폭발사고로 인해 완전하게 얼굴을 잃은 시기로부터 가면의 제작을 결심하고 실제로 제작을 하기 시작한 때까지의 6개월 간의 일들이 적혀져 있다. 제2권에는 하얀색 노트로 가면이



완성되어 주인공이 그것을 쓰고 다닌 시점에서부터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제3권에는 회색 노트로 「가면의 얼굴」로 변장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되어 계획대로 아내를 유혹하는데 성공한다는 내용이다.

구성은 일기인 만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검정색, 흰색, 회색의 세 권의 노트에 구분해 놓았으나 「追記」·「追記의 追記」·「欄外註」·「아내로부터의 편지」등이 추가로 삽입되면서 작품상의 시간의 구조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주인공인 내가 쓴 일년간의 기록과 「追記」가 있다. 그리고 「아내에게 쓴 편지」는 세 권의 노트를 다 정리한 다음에 쓴 것이고 「追記의 追記」는 「아내가 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쓴 것이다. 「欄外註」는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것으로 「마지막 페이지부터 추가로 써 내려간 자신만을 위한 기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人公이 여기서 일기형식을 채택한 이유는 자기고백이 용이한 형식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주인공의 내면의 심경을 쉽게 알 수 있어 작품의 전개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여기서 쓰여진 일기 형식의 글은 아내에게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

주人公은 작품의 서두에서 노트의 색과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지만, 주인공의 말처럼 노트의 색깔은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로 그는 절망감에 빠졌고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소외」로 비참하고 암울해진 주인공의 심경처럼 온 세상도 시커멓게 보여졌기 때문에 첫 번째 노트의 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두 번째 노트를 「흰색」으로 설정한 이유는 주인공이 “자아, 출

발하자! 새로운 타인의 얼굴에 의한 새로운 타인의 세계로 출발하자!” 라고 말한 것처럼 진짜 얼굴에 버금가는 훌륭한 가면의 제작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에 희망과 기대에 대한 상징적으로 선택된 색으로 보여진다. 여기서의 「새로운 타인의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다. 40세 이상의 얼굴에는 책임을 지라는 말도 있지만 타고난 「얼굴」의 기본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자기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얻어 지는 것은 경박하고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비극의 말로를 맞이할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트를 「회색」으로 설정한 것은 얼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만 아내에 대한 질투와 증오 그리고 가면의 얼굴로 인해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소외」의 문제가 自家撞着에 빠져짐으로 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Identity)<sup>18)</sup>상실하고 영원한 「疎外者」가 된다는 암시가 보여지는 부분이다.

문체는 과거에 대한 것들의 回想体가 주이며 아내가 주인공에게 쓴 서간체형식<sup>19)</sup>의 글이 끼여 있다.

18) 정확하게 말하면 에고아이덴티티로, 同一性 또는 自我同一性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덴티티는 인격 발달이론에 있어서, 청년기의 위기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역사적, 민족적, 사회적 것에 대한 존재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또, 근래에는 청소년기에 국한하지 않고, 인생전반에 걸친 과제로서 문학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정진태 (1997), 『文學用語 事典』, 보성출판사

19) 서간체 소설이란, 소설 속에 한두 편의 편지가 수록된 것은 서간체 소설로 부르지 않으며, 사건의 제시와 전개가 주로 작중 인물간에 주고받는 편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소설만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루소」의 「신엘로이즈」 등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 최서해의 「탈출기」 등이 있다.

정진태 (1997), 『文學用語 事典』, 보성출판사

공간적으로는 주로 주인공의 집과 「가면」을 제작했던 제2의 집이라는 폐쇄적인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베는 「얼굴」의 상실이라는 독특한 사건을 매개로 하여 당시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소외」의 문제를 제기<sup>20)</sup>하였으며, 자기 변명의 글이 몇 번이나 추가되는 등 복잡한 구조는 현대의 불합리성 및 부조리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0) 정문길 (1998),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 IV. 『타인의 얼굴』에서의 「疎外」의 의미

「소외」란 아베의 작품에서 뿐만아니라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공감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또, 그 의미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실로 각양각색의 의미를 띄고 있을 것이다.

이 章에서는 「소외」의 의미와 아베작품에서의 주요 테마중 하나인 인간 소외의 문제를 아베는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알아 봐야 할 것 같다.

「소외」의 사전적 의미로는 싫어하여 따돌리는 것·철학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 의한 산물, 곧 노동의 생산물, 사회적 제 관계, 금전, 이데올로기 등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활동 자체가 그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외적(外的)·강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다.<sup>21)</sup>

버나드·머틸렌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소외」란 「자기의 상실, 불안증상, 혼란, 절망, 비인간화, 귀속감의 결여, 의미의 상실, 고립, 폐시미즘, 커뮤니티의 소실」<sup>22)</sup>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그 「소외」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자연, 인간의 과거, 신, 사회와 사회 내에서의 많은 조직들, 노동, 친구나 지인, 가치, 건강하고 깊은 정서, 성, 환경, 그리고 자기자신」 등을 열거하였다.

「소외」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은 「소외」가 사회와 사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나 환경 같은 사회적 문제와 거기에 수반되는 심

21) 정진태 (1997), 『文学用語 事典』, 보성출판사

22) 安西徹雄訳 (1975), 『疎外の構図』, 新潮社

리적인 문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상승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自己疏外를 명확하게 자각하고 추구한 사상가라고 알려져 있는 루소는 개인의 이기심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인간의 소외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sup>23)</sup> 하였다.

또, 마르크스는 「소외」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보며 「소외」의 요인 및 인간의 비인간화의 요인을 물질과 금전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sup>24)</sup>

사회과학적인 소외의 현상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꾸준히 연구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가는 경향으로 보인다. 프로이트도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소외」는 사회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 분리하여 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소외」의 원인은 자기의 쾌락추구의 욕구와 사회가 요구하는 억압원리(抑圧原理) 사이에서 빛어지는 갈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현대에 있어서의 「소외」의 의미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 의식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25)</sup> 그

---

23) Rousseau, Jean-Jacques, 1712.6.28 ~ 1778.7.2 : 그는 저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까지 대항하며 갈망과 의무의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데 단순한 인간으로도, 시민으로도 있을 수 없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타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다. 사람은 현대라는 特定한 시대에 얽매어 프랑스인이 되고 영국인도 되며 또, 어떤 特定한 국가에 속해 있으므로 하여 중산계급이라고 하는 特定한 계급에 속해 있게 된다.」 라고 하였다.

장자크루소 (1997), 『사회계약론』, 배제서관

24) Marx, Karl Heinrich, 1818.5.5 ~ 1883.3.14 : 그는 저서에서 노동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에 비례하여 그들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물건의 가치상승은 인간의 가치하락과 비례하는 것이다. 노동이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노동과 노동자까지도 상품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였다. 또, 인간이 물건으로 下落되는 현상을 비꼬며, 노동자는 생산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도 소외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만들어낸 물건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인간은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한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소외되어 결국, 노동자는 共同体로부터도 소외된다고 하였다.

김창호 (1991), 『마르크스의 역사적유물론과 인간론』, 죽산산서원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나 그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주위 상황에 묵묵히 따라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소외된 인간은 자기도 타인도 그저 물건으로만 인식되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up>26)</sup>의 단절은 물론 자기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단절된다. 이것은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며 상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결국, 외부의 세계와도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적인 「소외」의 현상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의 「소외」의 문제는 사회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이 상호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외」에 대한 연구에 따른 이 정의는 「소외」의 사회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이 상호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sup>27)</sup> 아베문학을 포함한 현대문학에서는 심리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베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주인공은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상실에 괴로워하거나 그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려고 자기의 생활의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기를 알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실패하거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실패하고 만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 하지만 그 주인공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와 현실세계와의 두꺼운 벽은 하나의 괴리감으로 그것에 실패할 경우, 그들은 자기

---

25) 김광규 (1984), 『현대문학의 이해』, 민음사

26) 언어의 의미가 이해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날로 복잡해 지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문학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주제 가운데 하나임.

정진태 (1997), 『文学用語事典』, 보성출판사,

27) 정원식 (1989), 『現代教育心理学』, 教育出版社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도 소외당하게 된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아베의 작품에서의 중요한 주제가운데 하나이다.<sup>28)</sup> 주인공은 거의 예외 없이 고립된 인물로 주위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인물이다. 변변한 친구나 가족도 없을 뿐더러 결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별거하고 있거나 별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주거환경 또한 상막하고 인간미 없는 대도시의 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주인공도 예외는 아니지만 『모래의 여인』을 기점으로 아베 작품에는 「소외」라는 주제에 대한 아베의 관심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이 처한 조건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라는 것이 왜,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동석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들개와 같은 비참함을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상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늙은 개의 눈과 같은 절망적인 고독감.

自分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だけで、同席者に対する嫌がらせになってしまう。野良大同然のみじめさのことを、ほんのちょっぴりでもいいから想像してもらいたい。死にかけている老いぼれ犬の眼のような絶望的な孤独感。<sup>29)</sup>

아내에 대한 친밀과 신뢰감을 비롯 모든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주인공의 절망감과 비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는 모든 타인에 대해 절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벽을 느끼게 되는데 「얼굴」의 상실 이후, 이 단절의 벽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타인과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다.

이러한 심경 속에서 주인공은 아내에 대한 두 가지의 모순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아내와의 통로를 회복하고 싶다는 욕구와 복수의 욕구이다. 이

28) 新聞進一 - 外 (1984), 『日本文学史』, 学文社

29) 安部公房, 앞의 글, p. 256

러한 감정으로 아내를 보며 어떤 가면을 만들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택한 얼굴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층 더 깊은 「소외」만 야기 할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얼굴을 상실한 남자라는 비유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성상실을 뜻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눈을 통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우리 모두가 원래의 얼굴은 상실한 채 그 대신 가면을 쓰고 오직 자기의 이윤과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가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가면을 만들려고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결국은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가면의 제작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가장 가까운 타인인 아내를 속이지 못 했다는 것은 타인과의 통로회복에는 성공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작품에는 현대인에 대한 根底的인 고발이 내포되어 있으며 현대인은 수많은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만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책에 불과한 것 같다

현대사회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추상화하고 있는 것은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이나 금전, 제도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허구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아베는 이런 것들을 허상의 것들을 매개로 하여 戲面化해서 보여 주려고 했던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소외」의 의미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 의식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외」된 인간은 자기도 타인도 그저 물건으로만 인식되어 타인은 물론 자기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단절되어 결국, 외부의 세계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타인의 얼굴』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들은 모두가 원래의 얼굴을



상실하여 그와 다른 「가면」을 쓰고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가면」이든 진실이 결여된 「가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아베 작품에 나오는 「소외」는 급변하는 사회로 인한 현대인의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얼굴 상실로서의 「소외」

이 章에서는 주인공이 처한 일상을 인용문을 통해 알아보고, 처음에 주인공이 생각하는 「얼굴」에 대한 의미와 타인들이 생각하는 「얼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얼굴상실」과 「소외」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바로 전 작품인 『모래의 여인』에서는 「모래」와 「여인」이 『타버린 지도』에서는 「도시」가 「소외」의 매개체로서 등장하는 반면 여기에서는 「얼굴」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의 「얼굴」은 內的인 표상인 동시에 外的인 표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얼굴」의 상실은 곧 자유에 대한 출구의 계기가 되며 만들어진 「얼굴」은 주인공의 새로운 탄생으로써 「얼굴」의 상실과 현실세계와의 갈등 해소책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든 간에 그가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보통의 얼굴을 갖은 사람들이 위선으로 진정한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이 새로운 「얼굴」에 의해 「그 누구도 아닌」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를 약속한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 했다. 왜냐하면 내적인 면에서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고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痴漢的 自由」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로써 또 하나 「소외」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타인일텐데. 마치 유기 화합물처럼 단단히 쇠사슬을 만들어 끼어들 틈 따위는 조금도 없다 ... 입고 있는 것까지도 어딘가에서 서로의 암호를 갖고 있다. 유행이라고 불리 우는 대량생산된 오늘의 암호이다. 그것은 도대체 제복(制服)의 부정이란 말인가. 아니면 새로운 제복의 일종에 불과한 것인가. 끊임없는 변화라는 점에서는 제복을 부정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정이 집단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는 역시 지극히 制服的인 것처럼 생각된다.

他人であるはずなのに、まるで有機化合物のようにしっかりきりをつくって割りこむ隙などどこにもない ... 着ているものまでもととかで互いに府牒を合わせもっている。流行とよばれる大量生産された今日の府牒だ。そいつはいったい制服の否定なのか。それとも新しい制服の一種にすぎないのか。絶え間ない変化という点では制服の否定だろう。しかしその否定が集团的に行われる点では、やはりきわめて制服的であるようにおもわれる。<sup>30)</sup>

위의 인용문은 현대사회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 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사회화로 고도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기계문명의 사회로써 인간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없는 대량상품의 하나로 인간을 제복적(制服的)인 것에 비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제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敵이 이제는 옛날처럼 누구의 눈에도 쉽게 분별이 가능한 확실한 경계선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대이다. 전철을 타면 옆 사람보다도 가까이 무수한 적이 몸을 찰싹 맞대고 있다.

우편물로 위장해서 집 안으로 까지 들어오는 敵도 있으며 전과로 변해서 세포 속까지 침투를 하려고 한다. 막을 수 없는 적도 있다. 그런 이유로 적의 포위는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되어 이웃 따위는 사막에 떨어뜨린 바늘만큼이나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

30) 安部公房, 앞의 글, p. 279

敵とがもはや昔のように誰の目にも用意に見分けがつかはっきりした境界線で  
區別されなくなっているのが現代である。電車に乗れば隣人よりも身近に、  
無数の敵がぴったりと身を寄せている。郵便物に化けて、家のなかまで入り込ん  
でくる敵のいれば、電波に化けて、細胞のなかまで浸透をはかる。  
防ぎようのない敵もある。そんな次第で、敵の包囲はすでに日常的風俗となり隣  
人など砂漠に落した針ほどにも目立たぬ存在になってしまった。<sup>31)</sup>

위의 인용문 외에도 이 작품에는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センチ멘탈한 감  
정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가의 신랄한人間觀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란 적과 크게 구별됨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항상 적들에게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웃  
이란 것은 사막에 떨어뜨린 바늘만큼의 존재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만  
큼 드문 존재임을 묘사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  
에 善意의 뜻을 가진隣人或惡意의 뜻을 가진 정확한敵의 구분은 가능  
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오늘의 동반자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베가 생각하는 타인이란 위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며隣人  
이란『闖入者』<sup>32)</sup>에 나오는 위선적이며 잔혹한 가해자를 뜻하는 것 같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독립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익사회이기 때  
문에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열심히 타임 레코더를 누르고 인감을 파게 하고, 명함을 주문하고

---

31) 安部公房, 앞의 글, P. 338

32) 『闖入者』(1951) : 주인공은 친구라며 찾아 온 낯선 가족 일행에게 감금되어 결  
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

저금을 하고, 컬러의 치수를 재고, 환영회의 초대장을 쓰고, 생명보험에 들고 부동산 등기를 하고 여름문안엽서를 쓰고 신분증에는 사진을 붙이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라도 잃어버린다면 당장에 버림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세계.

せっせとタイムレコーダーを押し、印鑑を彫らせ、名刺を主文し、貯金をし、カラ-の寸法をはかり、歓迎会には寄せ書きをし、生命保を賭け、不動産の登記をし暑中見舞委を書き、身分証明書には写真を粘り、そのうちいずれか一つでも忘れてたりすれば、たちまち置き去りにされてしまうかのしれないような世界。33)

이것은 개성이 말살되고 바코드로 구분되는 고도의 물질문명의 도시의 일상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것이 작가가 파악하고 있는 현대사회인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배제되어 있는 형식적인 것들로, 상막하고 메마른 세계에서 과연 진정한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것일까. 사람의 가치가 물질로 환산되고 이해타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란 외롭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사회에 대한 생각은 냉소적인 그의 작품들과 무관할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틀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한번쯤은 이러한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일상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이 곳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으며, 주어진 규범적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가치에 스스로를 맡겨 버리면 모든 것이 순조롭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얼굴』에서의 日常은 개인을 집단적 규정에 帰屬시키고 그 귀속에 의해 개성을 잃게 하여 개인을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그 귀속으로부터 개인이 이탈하려고 할 때 일상은 개인을 소외시켜 버리거나 격리시켜 버린다고 작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확일적

---

33) 安部公房, 앞의 글, P. 363

으로 규격화된 인간의 얼굴 또한 하나의 규격이므로 그 얼굴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작가는 얼굴을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며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유력한 매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高野斗志美는 安部公房論에서<sup>34)</sup>

우리들은 현재 일상적인 세부와 일치시켜 행하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의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 그저 믿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변형을 도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나 위험한 것이다. 즉, 인생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태도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만 결국 그럴 수 없다는 자신을 実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私達は現在、日常的細部に一致していなまれている自分の生の形を、自分のものであるとは信じていない。ただ信じているふりをしてるだけである。だから、本当のところは、人生はわたしたちの願望にしたがって、変形されなければならぬ物なのだ、誰もがそう考え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人生の変形をくわてることは、あらゆる意味で危険なのだ。つまり、人生は変形されなくてはならぬと信じながら、しかもなお、それを信じていないというふりをし、そのふりをどこまでもおしとおすことによって、結局、それはありえないことの自分を実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라고 아베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의 일상에 대해 代弁하였다.

일상 속에서 사람의 인생이란 자기 내부의 의지에 따라 變容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에 의해 자기의 의지가 단절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베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은 급변하는 사회상황과 청소년기를 보냈던 황량한 만주의 모래벌판과 같은 삭막함 속에서 사람들의 개성을 말살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

34) 高野斗志美 (1979), 『安部公房論』, 花神社

하지만 일상생활은 歸屬欲求와 離脫欲求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의 二重性이란 일상이 귀속만을 요구한 사회가 아니라 이탈의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는 유동적인 사회를 뜻하는 것 같다.

이 소설은 주로 심리적인 변화에 중점을 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의 상실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認知해 가는 모습이다. 즉, 열등감을 가진 한 인간의 심리적인 추이가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사람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 「얼굴」의 존재를 의식하며 가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속한 사회로부터 좀 더 좋은 반응과 호감을 얻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것은 언뜻 보면 개개인이 타고난 얼굴을 토대로 다양하게 개성을 추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사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미의 기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회로부터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실험을 하다가 정상적인 「얼굴」을 상실하고 얻게 되는 새로운 첫 번째의 「얼굴」은 상실된 「얼굴」을 봉대로 감고 원래의 얼굴을 숨긴 「복면의 얼굴」이다. 그럼으로써 주인공과 외부세계간에는 하나의 선이 그 어지는데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평범한 사회의 타인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진다.

아베작품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등장인물처럼 여기서도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끼여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방황한다. 사회적 역할만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된 것이 작품의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아베의 기본적 모티브인 「변신」이 존재하지 않는

다.<sup>35)</sup> 왜냐하면 그의 「얼굴」은 사고로 인해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외」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얼굴을 상실한 주인공의 비유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평범한 한 남자에게 닥친 사고는 아내를 비롯 모든 타인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덴티티의 문제 및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베는 아내에게 외면당한 후의 주인공의 심리묘사를 통해 주인공이 소외된 자아의 중심점에 있는 것이 아내라는 것을 제시한다. 주인공은 아내를 가장 가까운 타인으로 생각하며, 그 아내야말로 「제일 먼저 통로를 회복해야 하는 상대이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편지에 그 이름을 써내려 가야하는 상대」라고 했다.

아베의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는 유형이지만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결혼을 하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아 왔는지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물론 아베도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그 모순된 반응을 통해 즉, 타자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과 타자를 지배함으로써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모순된 반응을 통해 아베는 단절이 사람에게 미치는 분열증적 효과를 전하려는 하는 것 같다. 가면은 진정한 아이덴티티로부터의 도피와 그 도피에 의해 얻어지는 자유와 안전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소외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고 생각되는 아내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

35) 岡庭昇 (1976), 『花田清輝と 安部公房』, 第三文化社

인간의 용기 그것도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얼굴 정도에 왜 그렇게 호들갑을 치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人間の容器、それもほんの一部分にすぎない顔くらいになんだってそんな大騒ぎをしなればならないか。36)

이것은 주인공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다.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 또는 물건의 대한 진가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주인공 역시 이전의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얼굴」이란 인간의 내면을 담고 있는 몸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굴」을 잃어버린 주인공은 얼굴을 상실함으로써 일상생활이 자신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경험하기도 전에 켈로이드의 얼굴을 봉대로 싸서 숨기고 다닌다. 그리고 주인공인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얼굴의 존재의 중요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얼굴 따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리는 없다. 인간의 무게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내용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대뇌피질과는 관계가 있어도 얼굴 따위가 말참견을 할 여지는 없는 세계일 것이다. 고작 얼굴의 상실에 의해 저울의 눈금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원래 내용이 비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顔ぐらいがそれほど大きな比重を占めたりするはずがない。人間のおもさはあくまでもその仕事の内容によってはかられるべきであり、それは大脳皮質には関係しえても、かおなどが口をはさむ余地のない世界であるはずだ、たかだが顔の喪失によって、計りの目盛りに目立った変化があらわれるとすれば、それはもともと内容空虚であったにほかならない。37)

주인공은 「얼굴」의 존재는 사회에서 하나의 기호 같은 것에 불과하며

---

36) 安部公房, 앞의 글, P. 236

37) 安部公房, 앞의 글, P. 236



인간의 가치나 질이 얼굴이라는 피상적인 것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이 가진 내면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얼굴」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아무리 인정받는다 해도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로부터 수용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하는 일상 속에서 그들과 달리 혐오감을 주는 얼굴을 가진 주인공은 그 사회 안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자신과는 처한 입장이 다르게 때문이다. 인간은 어느 면이든 공통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때에만 공동체 안에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질 때에는 불안감과 소외감에 빠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얼굴을 지닌 사람과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얼굴을 지닌 사람이 겪는 삶의 양상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작품 중에 묘사되어 있다.

얼굴 없는 인간에게는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만도 나에게서 너무 힘든 일이다.

顔のない人間には心もないとも思っているのか。かれらはぼくの仲間入りを許さうとしないのだ。僕があるいているだけでも、もうせいっぱいなのだ。38)

이쪽에서는 볼 수 없는 허위의 얼굴.

見かえすことの出来ない偽りの顔。39)

---

38) 安部公房, 앞의 글, p. 289

39) 安部公房, 앞의 글, p. 238

이것은 주인공이 「얼굴」을 상실한 후에 느낀 감정이다. 주인공은 변화한 거리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얼굴」의 상실은 이렇게 열등감은 물론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타인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소외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망가진 「얼굴」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던 소녀와 피구를 하던 소년들이 얼굴색을 바꾸며 피해 가는 것,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사방에서 주인공을 마치 남의 집에 침입한 침입자를 보는 듯한 눈초리로 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아무리 정상적인 「얼굴」의 상실을 가볍게 생각했던 주인공의 얼굴에 대한 가치개념은 극적으로 전환되며 「나의 불행은 어디까지나 나에게만 한정된 일이며 절대로 타인과 공통된 화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주인공은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얼굴」이란 인간의 내면을 담고 있는 몸의 작은 일부로, 사회에서는 하나의 기호 같은 것에 불과하며 인간의 가치나 질이 「얼굴」이라는 피상적인 것으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얼굴」상실 후, 주인공을 바라보는 눈초리와 대인관계에 의해 심리적·사회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얼굴」이란 피상적인 가족이 아니며 표정이라는 내면을 담은 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즉, 「얼굴」은 사람이 지닌 지위, 체면, 인격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사람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가족을 비롯한 타인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얼굴」의 상실로 「타인과의 통로」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을 계기로 원래부터 「타인과의 통로」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타인과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두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주인공은 현대인은 모두가 「얼굴」을 상실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곧 현대인들의 「얼굴」은 모두가 「불안정한 가면」으로 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記号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베는 자아, 즉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얼굴」을 상실함으로써 주인공이 타인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소외당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소외」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인공의 「얼굴」상실의 비유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성 상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복면의 얼굴로서의 「소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 章에서는 「복면의 얼굴」과 「소외」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정상적인 「얼굴」의 상실은 심리적·사회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게 한다.

정상적인 얼굴을 잃은 「나」는 심리적인 면에서는 결국 일상생활 밖으로 쫓겨났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상생활 안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전의 일상생활을 되도록 빨리 회복하려는 노력 끝에 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매개로서 「얼굴」을 숨긴 「覆面의 얼굴」을 제작하기로 한다. 이런 노력은 사회 안에서 친화적으로 수용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복면을 쓴 나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려 하고 있다.

의복으로 덮은 것이 문명의 진보라면 앞으로 覆面이 상식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식이나 축제 등의 경우는 자주 실제로 사용되어 왔다. 말로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복면이 타인과의 관계를 맨 얼굴일 때 보다 그 이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衣服で覆ったのが文明の進歩なら、将来、覆面が常識になることだってないという保証はどこにもない。これまでだって、重要な儀式や祭りの場合には、しばしば実際にしようされているのだ。うまく言い表すことはできないが、覆面は他人との関係を、素顔のとき以上にな普遍的ものにならせてくれるのではあるまいか...40)

주위 반응으로 인해 「얼굴」의 대한 생각은 조금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가진 자기의 얼굴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이렇게 합리화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 했던 것 같다.

또한 주인공은 얼굴의 중요성을 부정한 채 「복면의 얼굴」을 주위에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하던 그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그대로 두면 당신은 반드시 일생 동안 붕대를 감은 채로 지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붕대 밑에 가려진 것(켈로이드 상태의 얼굴)보다는 약간이라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もうそのままにしておりたらあなたはきっと、一生包帯をしたまま送ってしまうに違いない。現に、そうしていること自体が、いまの包帯の下にあるものよりも、幾分かでもまだと考えていらっしゃる証拠ですからね。41)

이러한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의 상실이 사회에 있어서 소외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모의 중요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얼굴」의 상실은 타인을 의식하게 하고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고립

---

40) 安部公房, 앞의 글, P. 237

41) 安部公房, 앞의 글, P. 247

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에 끼여들려고 해도 받아 들여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침입자를 보는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しんにゆう者を見る目つきでみすえられ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42)

나는 얼굴의 구멍을 막는 마개를 가지고 싶었다. 더 이상 술래가 없는 술래잡기와 같은 흥내는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ぼくは顔の穴をふせぐ柱がほしかった。これ以上、鬼のいない鬼ごっこのような真似はもうおしまいにしてほしかった。43)

사회에서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인공은 타인과 사회로부터 당하는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얼굴」에 대해 심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며 점점 행동을 하는 주인공의 태도에 제약이 가해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짐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얼굴」은 단순히 「얼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타인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얼굴」의 상실로 아내를 비롯하여 사회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당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주인공은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복면의 얼굴」에서 벗어나고자 가면을 만들려고 과학적 자료들을 수집하게 된다. 오래된 학회기관지나 논문을 찾아다니는데 논문의 필자이자인 K氏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아베는 과학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얼굴은 자기와 타인과의 통로」라고 하는 철학적인 고찰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테마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한다.

---

42) 安部公房, 앞의 글, p. 242

43) 安部公房, 앞의 글, p. 241

얼굴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작품의 주인공이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이후이다.

신체, 특히 얼굴의 손상은 단순히 형태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精神衛生的인 영역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 같군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좋아서 저렇게 귀찮은 일에 정성을 쏟겠습니까.

身体、とくに顔の損傷は、単に形態上の問題だけで片付け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か。むしろ精神衛生的な領域に属することとすべきでしょう。さもなければ誰が好きこんでこんな邪魔めいた仕事に精を出したりするものですか。44)

이 의사가 말하기를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병의 완쾌보다는 정상적인 외양의 유무에 관해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그것은 단지 형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외모는 정신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며 그 사람의 전체에 관여한다는 뜻일 것이다.

주인공이 의사로부터 정신위생학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말은 주인공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이란 사람의喜怒哀樂이 담겨져 있는 신체부위 이상으로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용기 없는 알맹이를 존중하라는 것인가요? ... 신용할 수 없군요. 나는 인간의 혼은 피부에서 울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容れ物のない、中身を、尊重することがですか? ... 信用しませんね。私は、人間の魂は、皮膚に宿っているのだとかたく信じていますよ。45)

여기서 의사는 주인공이 생각해 왔던 「얼굴」에 비중보다 훨씬 많은 의미로, 영혼을 中身に 비유하고 그 中身を 담는 용기를 얼굴에 비유하여

---

44) 安部公房, 앞의 글, P. 246

45) 安部公房, 앞의 글, P. 246

영혼은 얼굴을 통해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작가는 주인공이 찾아간 어떤 의사와의 대화에서 독자들의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相反된 의견들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주인공과 대립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얼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이 모아진다.

실험중의 폭발로 알아보지 못 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복면의 얼굴」을 갖게 된 주인공은 타인으로부터 두 가지의 반응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트리는 꼬마아이의 반응과 어른들이 대체적으로 보이는 동정의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으로 주인공은 「얼굴」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얼굴」이란 사람이 지닌 지위, 체면, 인격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사람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외관이나 형식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며 인간에게 있어 알맹이보다는 容器라고 말할 수 있는 외모가 더 존중받을 때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얼굴」은 단순히 「얼굴」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모의 손상은 정신에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에는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까지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불과분의 관계가 일상생활에서는 통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얼굴」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기호로써의 의미와 아이덴티티의 의미 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게 된다.

오늘날의 「얼굴」이란 하나의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작품에서 아베는 정상적인 「얼굴」을 상실함으로 해서 상식의 사회,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우리들을 격리시켜 상식의 일상 밖으로 끌어내었다. 즉 「얼굴」을 상실시켜 이 일상으로부터의 아웃사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베가 의도한 바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아베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비극성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와의 차단이다. 「얼굴」의 존재는 그 자체가 사회성을 의미하며 「얼굴은 인간 상호간의 통로」이므로 곧 「복면얼굴」인 「얼굴」의 상실은 사회와의 통로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복면의 얼굴」로서의 「소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인공은 타인 및 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매개로서 「얼굴」을 숨긴 「복면의 얼굴」을 하고 다닌다.

그러나 나름대로 고안한 「복면」의 얼굴 역시 남과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 한다.

「복면」의 얼굴로 인해 주인공은 타인과 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소외」를 당하게 되는데, 아베는 여러 가지의 얼굴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의 삶의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소설의 주제인 현대사회의 부조리 및 「소외」의 문제에 좀 더 근접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 3. 가면의 얼굴로서의 「소외」

이 장에서는 「가면의 얼굴」과 「소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주인공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복면」을 만들어 쓰고 다니지만 정상적인 얼굴과 다른 「복면의 얼굴」은 타인과의 위화감을 더해 줄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끼고, 이 번에는 타인과 같은 「얼굴」을 갖기 위



해 「가면」을 제작하기 위해 실험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은 주인공이 처한 고독하고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 아베는 여기서 만주에서 생계를 위해 사이다 제조를 하는 등 갖가지 경험을 했던 과거 경력을 토대로 가면의 제작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sup>46)</sup> 여기에는 그의 탁월한 과학적 지식과 삶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다.

가면의 관해 설명할 때 극히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리얼리즘의 소설과도 같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면 될수록 이 소설의 악몽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주인공의 내면 생활의 이야기로 연속되는 끔찍한 이미지를 통해 전개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독과 소외의 골은 깊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의 불능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아베는 왜 가면이란 매개를 사용한 것일까. 岡庭昇은 가면의 정의를 「가면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감추는 것이다. 스스로 얼굴을 가려서 正體나 意圖를 숨기기 위한 도구이다. 실제보다 보기 좋게 치장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아니면 원래의 자기를 숨긴 채 다른 무엇인가로 변신하거나 바뀌어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47)</sup>

이 외에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가면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얼굴을 상실한 주인공의 비유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sup>48)</sup>하고 있으며 「가면」은 多重的인 人格을 지닌 현대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의 표상인 동시에

---

46) 小久保実 (1975), 『国文学解釈と鑑賞』, 「安部公房の満洲体験」, 至文堂

47) 岡庭昇 (1976), 『花田清輝と安部公房』, 第三文化社

48) 安江武夫 (1967), 『近代文學研究3』, 「安部公房論」, 日本近代文學研究會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의 표상으로 보았던 것 같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아베는 주인공의 얼굴에 가면을 사용한 것 같다.

이 주인공은 얼굴 없는 고독한 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며 가면을 만드는 일에 몰두한다.

하지만 가면은 결코 자신과 일체화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얼굴 대용도 될 수 없었고, 이러한 주인공은 본인의 얼굴과 가면의 얼굴이 지닌 두 개의 인격을 보여줌으로써 그 주인의 심리묘사를 통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현대인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주인공은 가면을 완성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가면의 의미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타인과의 통로회복을 위해 가면을 만들게 되었지만 지금은 가면을 복면의 대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면과 복면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복면은 타인과의 통로에 있어서의 단절을 나타냈지만 가면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면과 복면은 대립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면은 피해자의 것이고 가면은 가해자가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는 결국 자기의 원래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타인과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암시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인용문의 마지막부분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결국 가면을 만들어 쓰고 다니며 서서히 자기의 얼굴로 받아들이기에 익숙해지지만 이 새로운 얼굴에 대한 그의 처음의 반응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시체」, 「죽음의 향취」 그리고 「소멸」등의 죽음의 관련된 이미지가 주도적이다. 가면을 쓰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 모양이나 색, 재질면에서는

완벽하지만 그 얼굴에는 공허감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오랜 동안을 무표정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는 조심스럽게 얼굴의 표정을 움직여 보지만 그 결과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웃을 때도 가면은 조금 일그러질 뿐 조금도 웃어 주질 않았다.

아베의 이러한 암울한 어휘선택은 주인공의 비인격화된 행동과 자아의 해체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 시켜주는 효과를 주었다.

주인공은 영망이 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만들므로 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얼굴들이 모두 하나의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견을 하게되는 것으로 끝난다.

아베는 주인공에게 「얼굴」의 상실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주인공을 일상생활로부터 단절시켜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 왔던 일상생활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고 관찰하도록 하고 있다. 작품은 「가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전개되는데 여기서의 「가면」이란 「복면의 얼굴」에 의해 파생된 斷絶感, 疎外感, 閉鎖性으로부터 해방되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자신의 고독과 소외를 숨겨, 궁극적으로는 전과 같이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주인공은 가면을 만들어 쓰고 「나」와는 별개의 타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즉 「가면의 얼굴」과 가면 밑에 있는 「원래의 나」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다기 보다는 각자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면의 얼굴」을 쓴 주인공은 타인의 「얼굴」을 통하여 전혀 다른 세계로 출발하였다. 「가면의 얼굴」이 사회로의 참여를 시도하는 양상을 작품으로부터 살펴보면 처음에 「가면의 얼굴」은

어떻게 생각하여도 상관없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는 이 해방감은 상당히 기분이 좋다. 특히 수치심에서 해방됨으로써 나는 껏전까지 뺨어져 오는 듯한 음악 속으로 흠뻑 젖어 들에 되었다.

どうおもわれようとおもわれたことにはならず、いっこうに痛痒はかんじないのだった。恥じ入る必要もなければ弁解する必要もないというこの解放感はなかなかどうして居心地のいいものである。とりわけ羞恥心からの解放は僕をとつぱり耳元まであわつような音楽の中にひたらせてくれていた。49)

또,

지위나 직업이라는 구속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지금까지의 자유스러움과 비교하면 마치 肉(고기)이라고 하는 문자에 비할 때 피가 방울져 떨어지는 생육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유의 절약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나치게 익숙해 버렸기 때문일까?

地位や職業という拘束の代価に支払ってもらったこれまでの自由さにくらべると、まさに肉というもじに対する血のしたたるような生肉のごときものだった。自由という節約にあまりにも長い間なれすぎたためなのか。50)

위의 인용문은 가면을 만든 후에 주인공의 심경을 묘사하는 글로 주인공은 새로운 「얼굴」로 하여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自由라는節約에 너무나 오래 동안 익숙해 져 있기 때문일까」 「가면의 얼굴」로 인한 자유와 해방감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소비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가 자문하며 자기의 욕망을 정리해 본 결과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감과 자유를 가진 「가면의 얼굴」은 어린 아이처럼 자유롭게 또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고 사회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가지기 시작한다. 가면을 제작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는 주인공이 원래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고 사회로의 첫

---

49) 安部公房, 앞의 글, p. 344

50) 安部公房, 앞의 글, p. 344

단계(窓口)라고도 할 수 있는 아내와의 교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가면」이 아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운 타인인 아내와의 교류에 성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내와 「가면」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주인공은 아내에게 접근해 가는 가면을 감시하고 아내와 가면과의 교류에 대하여 제삼자의 입장에서 감시하게 된다. 「가면」만이 아내라고 하는 사회의 窓口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원래의 나」는 그 가면의 독자성에 따라갈 수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가면」과 아내와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주인공의 말처럼 「나와 가면 사이를 가르는 깊은 홈을 뛰어넘는 어려움과 음험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고 假面劇 그 자체를 끝내 버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만큼 「가면의 얼굴」과 주인공은 인격적으로도 행동적인 면에서도 심리적인 면에서도 분열해 버리게 된다.

주인공은 얼굴의 절대성을 부정하면서도 결국은 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면」이라는 「얼굴」을 만드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가면의 얼굴」을 실험적인 「얼굴」로 생각하고 「가면의 얼굴」을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즉, 「얼굴」존재의 절대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보다는 「나」를 우월한 입장에 두고 「가면의 얼굴」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면의 얼굴」은 주인공의 통솔 밖에 서서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고 주인공의 관여를 완곡하게 거부하게 된다. 여기서 이 「가면의 얼굴」과 주인공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두 개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주인공이 아무리 「얼굴 따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리는 없다」, 「인간의 容器, 그것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얼굴의 피부 따위로 어찌서 그렇게 큰 소란을 피워야만 하는가?」라는 말로 얼굴의 중요성, 절대성을 부정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얼굴」이 가

지고 있는 그러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면의 얼굴」의 독자성은 이와 같은 경험의 결과로 드러났고 그것은 얼굴이 없으면 일상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독창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는 「원래의 얼굴」이 「가면의 얼굴」로 가려져도 「원래의 얼굴」은 「가면의 얼굴」의 행동을 놀람과 비판의 눈으로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을 뿐 「가면의 얼굴」과 융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인격의 본질이 가면의 얼굴에 의해 좌우되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가면의 얼굴」이라는 假定の 「얼굴」이 따로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원래의 얼굴」의 실질적인 변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얼굴」의 상실로 타인과의 통로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종래의 작품에서 보여졌던 현실로부터의 주인공의 도망이 아니라 追放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러한 추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면」을 제작하지만 이것은 공동체로부터의 또 한 번의 추방을 겪게 만든다. 왜냐하면 「가면」이 만든 것은 공동체를 성립하고 있는 觀念的基盤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고 「가면의 얼굴」이 가능한 자유의 세계이며 범죄조차도 가능한 세계로의 도망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아베는 주인공이 「가면의 얼굴」을 만들게 함으로써 사회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아무리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 해도 가면은 알리바이를 가지지도 않으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완벽한 匿名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면의 얼굴」은 끝까지 가정의 「얼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회에 「가면의 얼굴」을 가지게 된다면 「원래의 얼굴」이 할 수 없던 생각을 해 낼 것 같다. 따라서 「

원래의 얼굴」과 「가면의 얼굴」은 전혀 다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은 「가면」을 제작한 처음의 목적대로 「가면의 얼굴」로 아내와의 교류를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면을 통하여 아내를 다시 찾고 아내를 통해서 모든 타인을 되찾으려 한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원래의 나」에게 아내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가면에게는 단지 한 사람의 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면의 얼굴」은 아내에 대해서 대담해질 수 있어도 주인공의 내부에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인공이 二重의 존재로 되어 가면 갈수록 아내도 이중의 존재로 나에게 비추어 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공이 타인의 가면을 쓴 타인이라면 아내 역시 가면을 쓰고 있는 타인처럼 느껴진다.

그는 외출해서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리며 그가 열심히 강구해 냈던 유혹에 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 여기서 주인공의 마음에는 반대되는 두 개의 모순된 생각이 들게 된다. 원래의 얼굴은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 가는 것에 대해 슬프고 부끄럽고 화가 나지만 가면의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가면의 얼굴」은 아내와 남편과 가면과의 사이에 이상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주인공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남자라는 것에 주인공은 한층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공은 아내의 태도에 시종일관 의구심을 갖는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남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 당황스럽고 놀라우며 배반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가면의 얼굴」이 탄생함으로써 주인공이 두 인격체로 분열된 결과, 「가면의 얼굴」은 본래 의도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가면의 존재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파괴적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가면의 얼굴」과 「나」라고 하는 이중성에서 오는 분열과 갈등을 아내에게 고백함으로써 다시 복면을 쓰고 「나」로 돌아가 분열의 괴로움에서 해방되려 하고 있다. 즉, 「원래의 나」와 「가면의 얼굴」의 一人二役과 이들의 아내와의 삼각관계에 중지부를 찍는 것밖에는 파괴된 「나」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가면의 남자가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여 묵묵히 따랐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자신의 반응뿐만 아니라 가면에 대한 의미 자체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었음을 인지시켜준다.

결국, 자신이 가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원래의 얼굴이고, 본래의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비단 이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아베의 많은 작품에서 보이는 중심적인 테마로 아이덴티티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상실한 것은 가면이 아닌 실제의 당신의 자아가 아니냐는 반문으로 아내는 자취를 감춘다.

이상 「가면의 얼굴」과 「나」를 고찰 해 본 결과, 이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은 두 번에 걸쳐 심한 갈등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의 괴로움과 긴장감은 「얼굴」을 잃게 됨으로써, 두 번째의 것은 얼굴을 만들어 새로운 「얼굴」을 얻음으로써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얼굴을 없애버려도 또 얼굴을 복원해도 「나」의 갈등과 긴장은 말소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에 있어서의 「얼굴」의 有無는 주인공의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베는 주인공의 얼굴을 없애 버리기도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얼굴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있지만 얼굴의 유무 자체가 아베의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주체를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주인공이 「얼굴」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인공은 그가 사는 일상을 깊이 생각할 기회도 없고 생각을 해 본다 해도 일상 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스스로의 현실생활을 뒤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얼굴을 잃고 또 새로운 얼굴을 얻음으로써 과생되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과정 속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끝내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끝나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한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세계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아베가 무대나 작품 속에서 죽은 사람이나 투명인간 등의 非 實際物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매개체로서 그들을 둘러싼 현실을 보다 명확히 직시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편 「個人」이 일상사회라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로부터 단절을 결의하고 있는 한 일상이라는 「外界」는 항상 새로운 미지의 세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미지이기 때문에 미로의 세계일 수밖에 없고 미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러한 미로의 세계는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에게 고독한 초조함을 느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는 했지만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때 흐름 속에 생기는 웅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의 거머리 집뿐만이 아닌 얼굴자체를 넘어서 그 저쪽 건너편에 도착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얼굴을 잃은 덕분에 창문에 그린 그림이 아닌 진짜 바깥세계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あのときの流れのよどみの中で、ぼくは自分のひるの巣だけでなく、顔そのものを越え、その向こう側にたどり着いていたのかもしれぬ..... 顔を失ったおかげで、窓に描いた絵などではない、本物の、外の世界に接することができていたのかもしれぬ。51)

일상생활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얼굴」의 상실이라는 비상식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현실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을 신선한 경험으로 여기며 그 기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다음으로

얼굴의 상실이라는 나의 운명 자체가 다소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에게 공통된 운명이었던 것은 아닐까?

顔の喪失というぼくの運命自体がすこし例外的なことではなく、むしろ現代人に共通した運命だったのではあるまいか。52)

라는 인용문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굴」은 가지면서도 진실된 隣人을 잃게 되는 경우를 감안해 볼 때 인간에게 「얼굴」은 하나의 외형적인 표시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가면」은 多重的인 人格을 지닌 현대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의 표상인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의 표상으로 보았던 것 같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아베는 주인공의 얼굴에 가면을 사용한 것 같다.

하지만 가면은 결코 자신과 일체화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얼굴 대용도 될 수 없었고, 이러한 주인공은 본인의 얼굴과 가면의 얼굴이 지닌 두 개의 인격을 보여줌으로써 그 주인의 심리묘사를 통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현대인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아베는 현대인은 누구나가 상황에 따라 潜在的 殺人者나 潜在的 痴漢이 될 수도 있다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지적한 것 같다. 현대인은 각양각색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 어떤 얼굴이든 간든 그것은 허위와 가식 그리고 이해타산에 의해 변해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

51) 安部公房, 앞의 글, p p. 308 - 309

52) 安部公房, 앞의 글, p. 339

고 있다.

이 소설의 구조는 「가면」의 메타포<sup>53)</sup>가 그 핵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이미지는 드라마틱한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소설의 모든 사건의 발단인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에 의해 발생한 고독과 고립이라는 테마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권의 공책에 연속성을 주며 서두나 追記를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를 통일하고 긴밀한 작품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가면」이다.

또, 이 「가면」은 주인공의 성격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소외」의 과정이 가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가면」 자체가 주인공의 위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소외」와 자기분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 권의 공책을 통해 보여지지만 어딘지 모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 마지막에 가서도 남편의 성격에 대한 의문은 아내의 편지에 의해 어느 정도만 해소될 뿐이다.

아베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징으로 자기의 진짜 얼굴이 「가면」인지 원래 얼굴인지 점점 자신이 없어진 주인공을 설정해 놓은 것 같다.

여기서 아내는 이러한 주인공의 거울 역할을 맡고 있다. 주인공의 분열된 이중의 인격은 어느 쪽이든 아내의 반응에 의해 진행된다. 주인공은 아내의 표정과 심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진면목을 파악하지는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의미의 이해라기 보다는 남편의 주관에 의해 일그러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53) metapho : 수사법의 하나로 暗喩라고도 한다. 설명은 완전히 숨기고 비유할 목적을 숨기면서, 표면에 직접 그 형상만을 꺼내어 독자와 상상력으로써 그 본질을 알게 해 나간다.

정진태 (1997), 『文学用語 事典』, 보성출판사

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메타포는 작품가운데 추구되는 다양한 테마에 의해 증폭된다. 고독과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고 하는 메타포에 의해 완벽하게 구상화되는 중요한 테마이다. 왜냐하면 「가면」은 인간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타자와의 통로로서 가면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가면은 그와 반대로 타자를 생각대로 조작하기 위해 변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 주인공을 협박하는 흥기가 된다는 이 작품의 제일의 테마는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가면」의 이미지에 특히 적합한 테마였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에겐 죽음이라든지 폭력 등에 관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 또한 가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가면」은 본래 진정한 자기를 정신적으로 가두어 놓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고통받는 진정한 자기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또는 죽일 수도 있는 것으로 설정 되어있다.

가면을 제작한 목적은 주인공이 원래 자기가 소속해 있는 사회로 回歸하려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사회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의 교류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면의 얼굴」과 가면 속에 있는 「원래의 나」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다기 보다는 각자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가면의 얼굴」과 주인공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에서도 분열해 버리게 된다. 「가면」을 한 「얼굴」은 아내와 본래의 주인공인 남편 사이에 이상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주인공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가 되며 동시에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남자라는 인식 때문에 주인공은 한층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결국, 「가면」의 얼굴도 아내를 비롯한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

를 수 없었다.

이러한 주인공의 외부와의 단절은 곧 자신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타인과의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고독이라는 테마로 본다면 바로 이 전의 작품인 『모래의 여인』과 비슷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특히 「소외」를 강조하고 있다. 주인공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타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열증상을 보이며 결국에는 완전히 이중인격자가 됨으로써 아베는 「가면」을 쓴 주인공을 통해 현대의 불합리성과 부조리를 좀 더 강하게 제시한 것 같다.



## V. 결 론

본고는 아베문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의 얼굴』을 도시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문제를 다룬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남달랐던 유년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의 「소외감」과 작가생활을 했던 정치·사회·문화적으로 혼란했던 일본의 당시 상황이 아베의 작품에 투영되었다는 것을 그의 생애체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타인의 얼굴』이 발표된 당시의 일본에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규격화된 주거환경과 대량소비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며 교통과 미디어의 발달로 도시생활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종전의 人情社会와는 달리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끈끈한 관계는 解体되기 시작했다. 또, 근대화·도시화는 편리와 신속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가치관을 변모시켰으며 실존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본다.

아베는 『타인의 얼굴』에서 정상적인 「얼굴」을 상실한 주인공을 설정하여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는 당시 일본의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기 시작한 「소외」의 문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베의 선각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었고, 현대의 홀리스문제를 예언한 『상자남자』(1964)<sup>54</sup>와 더불어 『타인의 얼굴』은 이런 사회문제들을 고발하기 위해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는 급변하는 사회상황을 성장기를 보낸 만주의 모래벌판과 같은 황량한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사회의 일상으로 보았으며, 「얼굴」은 아이덴티티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54) 安部公房 (1968), 『安部公房集』, 新潮日本文学社

모든 공동체로의 귀속을 거부하며 종이상자속에서 생활하는 남자의 이야기

구성은 주로 지난 과거에 대한 回想体 日記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단순한 구성으로 보여지지만 색깔로 나뉘어진 세 권의 노트 속에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일년간의 일들과 추가로 덧 쓰여진 「追記」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내에게 쓴 편지」와 「아내가 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쓴 「追記의 追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쓴 「欄外註」로 나뉘어져 있어 의외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베는 이러한 작품구조를 통해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좀 더 강하게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작품 속에서 아베가 생각하는 일상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일상이란 사람의 가치가 물질로 환산되고 이해타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상막한 모습이다. 그러한 삭막하고 황량한 일상에서 「얼굴」을 상실한 주인공이 인간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복면의 얼굴」과 「가면의 얼굴」을 시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며, 어떤 얼굴이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타인과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위해 「복면의 얼굴」을 거쳐 「가면의 얼굴」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성취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와 결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만든 자기가 직면한 추악한 현실을 외면한 者가 갖게 된 가면의 얼굴은 원래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얼굴이며 그러한 者가 추구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가면은 의사소통은 커녕 또 하나의 소외와 고립을 초래하였고 주인공의 跛行을 암시하며 소설은 끝나게 된다.

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소설을 통해 아베는 현대인은 다양한 「얼굴」이

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 어떤 얼굴이든 간에 그것은 허위와 가식 그리고 이해타산에 의해 변질되어 가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베의 「소외」라는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소외」를 주제로 다룬 『모래의 여인』 및 『불타버린 지도(燃えつきた地図)』(1967)와 더불어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문헌

#### 【단행본】

- 김광규, 『현대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4  
김창호,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인간론』, 죽산서원, 1999  
박환덕, 『문학과 소외』, 범우사, 1981  
윤석산-外, 『문학의 이해』, 태학사, 1994  
장자크루소, (이진우역) 『사회계약론』, 배제서관, 1997,6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8  
정원식, 『現代教育心理学』, 教育出版社, 1989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 실천문화사, 1995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  
호쇼마사오-外, (고재석번역), 『日本現代文学史』,  
문학과 지성사, 1988

#### 【사전】

- 高宰錫, 『日本文学思想 事典』, 깊은 샘, 1993  
정진태, 『文学用語 事典』, 보성출판사, 1997

### 2. 일본문헌

#### 【단행본】

- 安部公房, 『日本文学全集』, 『他人の顔』, 集英社, 1968  
安部公房,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情堂, 1974

安西徹雄訳, 『疎外の 構図』, 新潮社, 1975

尹豆利彦 - 他著, 『日本文学講座 6』, 近代小説  
日本文学協会, 1988

岡庭昇, 『花田清輝와 安部公房』, 第三文化史, 1976

高見順, 『現代文壇史』, 築摩書房, 1976

古林尚・佐藤勝, 『戦後の 文学』, 有精堂, 1978

新聞進一 - 外, 『日本文学史』, 学文史, 1984

平林文雄, 『戦後の文学』, 笠間書院, 1977

本多秋五, 『物語 戦後文学史』, 신조사, 1966

渡邊士, 『安部公房』, 審美社, 1976

【논문·잡지】

小久保実, 『国文学解釈と鑑賞』, 「安部公房の満洲体験」, 至文堂  
1975,

川島秀一,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 「他人の顔-変貌하는  
世界」, 学灯社, 1996

工藤智哉, 『文芸と批評』, 「安部公房初期小説における変貌」,  
文芸と批評会, 2001

佐藤泰正, 『国文学解釈と鑑賞』, 「他人の顔論」, 1971

高野斗志美, 『国文学解釈と鑑賞』, 「小説における安部公房  
-1960年代」, 至文堂, 1979

谷真介, 『ユリイカ』, 「安部公房略年譜」, 青土社, 1994

谷川渥, 『ユリイカ』, 「安部公房の皮膚論」, 青土社, 1994

安江武夫, 『近代文学研究3』, 「安部公房論」, 日本近代文学  
研究会, 1967

渡邊俊, 『国文学解釈と鑑賞』, 「安部公房の現在」, 至文堂, 1979

**【사전】**

石本隆一等, 『日本文芸感想 事典』, 東京出版社, 1988

大久保典夫, 高橋春雄, 『現代文学研究 事典』, 東京出版社, 1983

日本近代文学官, 『日本現代文学大事典』, 講談社, 1984



《Abstract》

**AbeKobo and 「alienation」  
- Around of 「Face of A Stranger」 -**

**Hong, Sung-Bum**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Nan-Hee**

Face of A Stran is a novel first published in Gunsang in Jananuary 1964, later modified and re-published in book form in September the same year by Gangdamsa. The novel was adapted for the screen by the writer himself and introduced to the readers in 20 different languages. Spanish version of the work received the 7<sup>th</sup> Yagan Translated Literature Award.

Thus, 「Face of A Stranger」, having been introduced to many countries, is deemed to have succeeded in positioning itself as one of the most praised literary works in the world. Moreover, as the novel was a subject of profound discussions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in New York from April 19 to 21 in 1996, it became an example of showing the position of the Abe s works in the international literary communities.

Among many Abe s works that touch hearts of re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Face of A Stranger", second work after "A Woman of Sand" (1962) which dealt with alienation of modern society, expressed the theme in more depth, and is deemed to be one of the most serious modern literature that depicted the reality of the post-war Japan.

Though his domicile was Hokkaido, because he was born in Tokyo, spent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most of his youth in Manchuria and studied in college in Tokyo, he has a uniqueness of not possessing general sense of relation with his hometown, as he admitted himself as a man who lost his hometown .

At the time of the first publication of *Face of A Stranger*, in Japan, the society was producing more and more nuclear families, creating standardized living conditions and rapidly moving into mass-consumption. Due to advancement of transportation and media, the human relations in the cities, once very close in the old human-oriented society, began to deteriorate in the name of modern democracy.

Abe, based on the social conditions in 1960 s when he was working as a writer, is thought to have incorporated the chaotic Japanese society in which all the existing values were collapsed and his inner sense of alienation into his works. This thesis studied the theme about a man alienated in the city by relating it with Abe's "sense of alienation" while set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writer's literature and philosophy as the starting point. Furthermore, this thesis inquired into the meaning of "alienation" in the modern society and how the writer expressed such an issue in his "*Face of A Stranger*". His inner "sense of alienation" caused by experiences in his youth quite unique from the others and Japan s the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os were traced through the writer s lifetime experiences.

This study regarded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work which is consisted of Epilogue, Epilogue of the epilogue, Annotation and "Letter from Wife" as an element to highlight irrationality and unreasonableness of the modern time the writer wanted to reveal. The story shows that "we",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are all alienated no matter what face we wear by depicting a man who lost his "Face" in bleak and desolate daily life, and used a "Face of Disguise" and a "Face of Mask" in attempts to recover his relationship with others, but failed after all.

"Face of A Stranger" is highly praised in its presentation of "Alienation" to indict the issue of "Alienation" which was becoming one of the social problems amid rapidly-changing industrial Japanese society, by featuring a man who lost his "Normal face". As another piece of work that deals with "Alienation", "*Box man*"(1964) remains as the next subject to study.